

■ 공원 탐방

④ 중앙공원 **뽕길과 공원**

중앙공원 내 산길. 이 좁은 길은 중앙공원 주변 간선도로와 또 다른 골목길과 연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주 최대 공원의 맑은 공기를 전해주고 있다.

중앙공원은 간선도로와 좁은 산책길로 주변 주택단지와 절묘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길들이 서구와 남구 등을 향해 촘촘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공원은 화정로, 운천로, 송암로, 월드컵4강로, 광저우로, 회재로 등 간선도로가 둘러싸고 있으며, 공원 중간을 광저우로와 샌디아가 지나고 있다. 이 간선도로 이외에 백인길, 늘푸른길, 우정2길 등 골목길들이 있다.

간선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돼 있으며, 공원 내부의 숲길과 골목길이 이어져 시민들은 희색빛 도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길들을 걸을 수 있다.



회색 도심속 사통팔달 '녹색허파'



풍암저수지 주변에 설치된 체육시설. 광주 각지에서 도보로 저수지를 찾는 남녀노소가 이들 시설을 이용하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있다.

심정우(57·광주시 서구 차평동)씨는 "매주 2~3번 공원을 찾아 여유를 즐긴다"며 "걸어오는 길도 잘 정비돼 있어 2~3시간 운동도 즐기고 있으며, 일상에 지쳐 있는 심신이 맑은 공기에 한층 깨끗해진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앙공원 내 풍암저수지에는 멀리서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가고 있다. 풍암저수지를 건너는 다리는 물론 체육시설 등이 곳곳에 배치돼 있으며, 운치 있는 정자에 앉아 물오리떼도 구경할 수 있다. 풍암저수지 인근에 들어섰던 식당이나 찰고 등 건축물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주변은 자연 상태인 휴길로 조성돼 있다.

풍암저수지와 그 주변에 대한 준비는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본격화됐다.

풍암저수지 일대 생태탐방로 등 조성

광주시와 서구청은 시의 중심적 생태자원인 풍암저수지와 관련 '풍암저수지 웰빙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수립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민·관·전문가가 참여한 풍암저수지웰빙테마파크 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조성위원회가 주체가 돼 1억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탐방로, 벽천 등을 설치하고, 수목 및 수생식물 식재 11종 1만6천500본을 식재하는 등 전반적인 경관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2007년부터 서구는 풍암생태체육공원 정비, 풍암저수지 꽃길 조성, 풍암저수지 웰빙테마파크(생태습지) 조성, 가로 숲 조성, 회재로 주변으로 가로수벽 조성은 물론 풍암저수지 일대를 생태거점으로 하기 위해 별도로 풍암동 산25-67번지 등에 위치한 풍암생태체육공원 내 유희지와 공터를 풍암환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테마공원에는 2013년까지 식물원 1동, 주제정원 5개소, 산책로 600m, 도시 숲(10,000㎡) 등

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풍암저수지와 그 인근에 대한 시와 자치구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풍암저수지 등 중앙공원과 인근의 다른 공원을 연결하는 길을 발굴하고, 이를 도심 속의 자연 그대로의 길로 복원하는 것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의 중앙공원과 운천저수지 등 주변 녹지의 연계를 고려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축장·과수원길 경관자원 발굴 시급

그 대표적인 길이 종축장길과 과수원길이다. 서구 상무지구에서 상무로 횡단보도를 통해 곧바로 진입이 가능한 종축장길은 화해단지과 논과 미나리밭 등이 들어서 있으며, 가건물 또는 공장들도 위치해 있다. 종축장길 중간지점 오르막길에서는 상무지구의 경관을 볼 수 있으며, 이 길은 다시 과수원길로 이어지고, 서광주역로, 광저우로를 지나면 중앙공원에 들어설 수 있다. 이 종축장길과 과수원길 주변에는 소규모 저류지, 금호제, 녹지 등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산재돼 있어 추후 도심 내 경관자원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길은 자전거 동호인이나 동네 주민 등만이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장 등이 있어 차량 통행량도 많아 추후 전반적인 정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 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 김광훈(45)씨는 "중앙공원이 도시에서 흔치 않는 생태자원이라는 점에서 이 공원만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원을 도보나 자전거 등 친환경 수단으로 찾을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길을 발굴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광주시나 서구청에서 이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거대한 생태공간으로 탐바꿈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 도시제안

올해부터 광주에도 도심을 가로지르며, 생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길(탐방길)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 생태탐방·문화체험 벨트 조성방안' 용역을 완료하고, 스토리텔링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3차례에 걸쳐 포럼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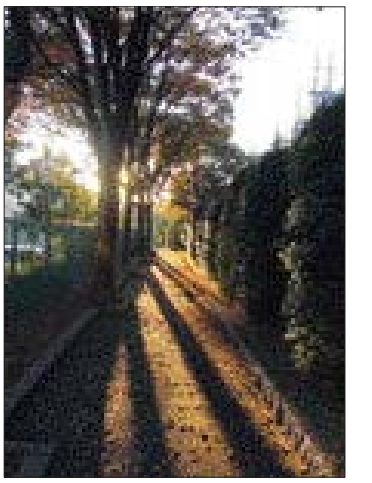
용역보고서와 포럼 결과, 역사와 문화, 비전을 담아 극락강, 광주천, 무등산, 가사문화권, 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주요 거점으로 해 생태문화자원을 발굴하고 5개 권역, 14개 노선이 생태문화길로 조성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 상반기 중 분야별 전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문화회망길 종합 구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감안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생태문화길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길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며, 동시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목적지를 연계해주는 공간이다. 거점과 거점을 잇는 길은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전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몫과 통행하는 사람들의 몫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민들이 거주공간 인근에

생태문화길 조성 조건은

건물·녹지와 사람의 조화

자신의 차량을 돌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 앞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 도보로 목적지, 즉 거점으로 다갈 수 있도록 그 길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해야 함은 물론이다.



건물과 녹지와, 물 그리고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생태문화길의 목표가 돼야 한다.

두 번째, 도보로 우선하는 생태문화길은 보호해야 할 자원과 가공해야 할 자원, 정비해야 할 자원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인공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가미될 경우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천연일물적인 길이 여가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생태문화길의 시범사업은 시 외곽보다는 구 도심 주택가에서 우선 실시돼야 한다. 구 도심 주택가 내부 골목길들이 재개발 또는 공공개발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구 도심 내에 산재해 있는 광주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하고, 공터 등에 공원 등을 조성하면서 길의 매력을 발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생태문화길 지도를 만들고,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는 이벤트도 계획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참여해 자신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길의 소중함을 깨닫고,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소규모 이벤트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생태문화길이 차량이 아닌 사람의 길로 탐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저희는 안전입니다!"

험하진 구조물 확인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피해된 콘크리트 보강은 국내에서 유일한 피관소 독해산업 전문기업

- 1. 현장조사**
 - 현장조사(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 현장조사(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 현장조사(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 2. 현장조사**
 - 현장조사(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 현장조사(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 현장조사(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 3. 현장조사**
 - 현장조사(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 현장조사(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 현장조사(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대한건설공사
www.konghwa.com

이오니아 1석 2조 페스티벌!

일석이 두 가지의 이온수기 구입용량 개선효과와 획기적 성능 노비타바데 증정행사!

이온수기 구매시 최대 **1+1** 증정행사를 실시합니다.

일석이 이온수로 건강도 챙기고, 비데까지 덤으로!

이온수기 구매시 **1544-1219**

세계 30여 개국 수출
연말 79,000명
모든 이온수기 필타교체 서비스